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다함께
*찬양과경배 Songs of Praise		다함께
기도 Prayer		강민선
*주님의기도 Lord's Prayer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눅1:18-23	다함께
말씀선포 Sermon	벙어리가 된 믿음	유형선
*찬양 Praise		다함께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유형선

*가 있는 순서에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현금은 예배당 입구에 들어오면서 현금함에 넣어주세요.

주일대표기도

11월 19일(추수감사주일)	11월 26일
윤하나	김중대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2시
아침묵상	(화-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공동기도제목

1.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2.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3.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주의 돌로스

본문 : 롬1:1,2

창립주일에는 맞아 사도바울의 일생을 함께 조명해 봄으로 2000년전 사도바울을 부르시고 사 용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임을 믿으신다면 이것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음성이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사도바울은 2차선교여행을 위해 안디옥에서 출발해 자신의 고향 땅인 다스로 향했습니다. 지도상으로는 두 도시가 매우 가깝게 보이지만 안디옥과 다소 사이에는 큰 장애물이 하나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누스 산맥, 오늘날은 튀르키예 지역에 누르 산맥이라 불리는 산맥이었습니다. 이 산맥은 해발 2,240m에 달하는 고산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선교를 위해 이 험산준령을 망설임없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누르 산맥을 건넌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일생을 통해 바울은 무려 4번씩이나 이 산맥을 넘게 됩니다.

먼저 그의 젊은 시절로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첫번째로 바울이 이 누르 산맥을 건넌것은 그의 나이 16세에서 18세로 추정되던 때였습니다. 그 나이가 되면 유대인들은 무조건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떠나야했습니다. 바울은 단지 성지순례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비하면 시골에 살던 젊은 바울은 부푼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유학하면서 최고의 유대교 종교 지도자가 되겠다는 부푼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누르 산맥따위는 젊은 바울의 앞길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가말리엘이라는 당시 유대교 최고의 율법학자 밑에 들어가 그의 문화생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탁월한 머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고대근동의 모든 언어, 히브리어, 헬라어, 아랍어, 이디쉬어까지 모든 언어에 능통했을 정도로 엘리트 층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니 그가 가말리엘의 눈에 띄었을 것임을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던 어느날 그리스도인이 예수가 부활했음을 믿으며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맹신하던 유대교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전도가 맘에 들지 않았고, 그들을 이단의 무리로 간주하여 색출하기로 작정합니다. 바울은 유대교의 떠오르는 스타였고, 그를 따르고 지지하는 유대교내의 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허망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모두 잘못된 지식이었으며, 잘못된 지식에서 나온 잘못된 열심이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즉시로 예루살렘에 달려가 이 소식을 동료들에게 알리고 싶었지만 주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 고향 땅으로 낙향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바울은 두번째로 누르 산맥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무려 13년동안 바울을 고향 땅에 칩거하게 하십니다. 당시 성인 남자의 평균 나이가 45세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13년은 엄청난 시간입니다.

13년뒤 안디옥교회의 공동담임목사가 된 바울은 죽을 때까지 한 생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갈아넣으며 충성했습니다. 그는 실로 주의 돌로스(종)이 되었습니다. 주의 부르심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지식이 무너지고 우리의 힘이 빠지는 순간에 완성됩니다.